



■ 연구원 주요일정

- 03월 27일(月) : 주간회의(14시)
- 03월 28일(火) : 함대, 석산마을 마을지 사업 현장 방문
- 03월 29일(水) : 야간강좌(18시 30분)

■ 연구원 소식

○ 46회 문화강좌 실시

: 3월 25일(토) 16시에 연구원 회원이신 나종화님을 모시고 46차 문화강좌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43명이 함께 했습니다. 강의실이 좁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강좌는 "여행학개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여행이란 깨닫고 놀고 보고 배우고 먹는 것이라는 말씀에 큰 공감을 나눴습니다. 다음번 문화강좌는 4월 29일 16시에 정도상 작가와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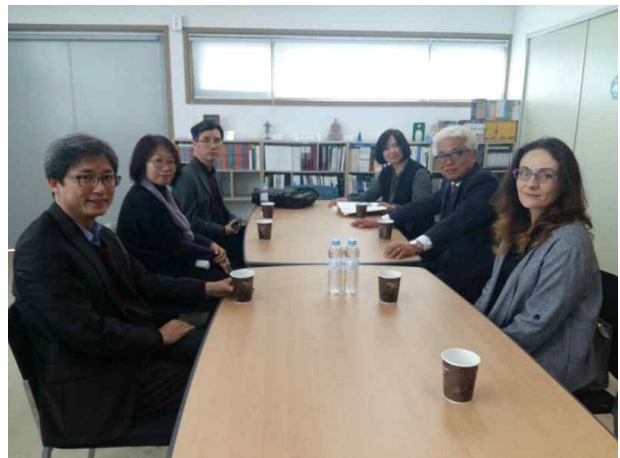
○ 한국국학진흥원 “정재석” 선생 방문

: 3월 23일(목)에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정재석 선생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변주승 상임이사가 연구원 시설 및 사업 소개를 진행하셨습니다. 정재석 선생은 향후 연구원 문화 강좌 참여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하셨습니다.



○ 전주대 중점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참가단
연구원 방문

: 중점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차 전주에 오셨던 서울대 정공식, 경북대 김경남, 동국대 홍웅호, 리쓰 메이칸대 가나즈 히데미, 한국외대 올레나 쉐겔교수께서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변주승 상임이사, 홍성덕 부원장, 김건우 이사, 이정욱 평의원 등이 동석하여 연구원의 사업현황과 계획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 **중점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신진연구자 발표**

: 3월 25일(토)에 우리연구원의 협약기관인 한국고전학연구소 중점연구소 국제학술대회에 연구원 사무국장과 행정실장이 경북대, 전북대, 전주대 대학원생 및 교수님과 함께 신진연구자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 **연구원 신규 회원 가입**

: 이번주에도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 두 분이 생겼습니다. 전주 하가지구 놀부부대찌개 대표를 맡고 계시는 **“박명필”** 님과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시는 **“이중필”** 님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통해 자주 모시겠습니다. 연구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 한국고전학연구소,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안내**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야간강좌는 매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강의는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한지산업관 202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독 교재로는 『호남의사열전』을 강독할 예정입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30분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야간 강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20분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러시아 해외역사탐방 안내**

: 작년에 이어 제2차 해외역사탐방이 이어집니다. 오는 7월 1일~9일 사이에 5박 6일의 일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차 탐방의 종착지였던 하바로브스크에서 시작하는 올해 일정은 자유시 참변의 아픔이 있는 스보보드니(옛 이름 알렉세예프스크)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32분만 모실 수 있으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구원 춘계 답사 안내

: 우리연구원과 전주대 K-History 2H 특성화사업단이 함께 기획한 문화유산 답사가 4월 8일(토) 열릴 예정입니다. 구례 오일장과 운조루, 방호정, 운흥정 등을 찾을 예정이며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에 대한 김천식 회원의 특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가비는 10,000원이며 좌석 관계로 선착순 20분만 모실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은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 답사 일정표 -

세부내용		비고
시간	일정	
08:40 ~ 09:00	* 전주대학교 집결 및 인원파악	* 09:00 출발
09:00 ~ 10:30	* 전주대학교 - 운조루	* 구례군 토지면 운조루길 59
11:00 ~ 12:00	* 섬진강 어류생태관	* 구례군 간전면 간전중앙로 47
12:00 ~ 13:00	* 점심식사(오복식당)	* 구례군 구례읍 봉동길 22-7
13:00 ~ 15:00	* 구례 오일장 탐방	
15:00 ~ 16:00	* 방호정, 운흥정, 수락폭포 견학	* 구례군 산동면 외산리
16:00 ~ 17:30	* 학교 도착	
18:30~	* 저녁식사 및 해산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 품

輞川閑居 贈裴秀才迪(망천한거 증배수재적) 망천에서 한가롭게 살며 수재 배적에게 지어준 시

寒山轉蒼翠(한산전창취)

秋水日潺湲(추수일잔원)

倚杖柴門外(의장시문외)

臨風聽暮蟬(임풍청모선)

渡頭餘落日(도두여락일)

墟里上孤烟(허리상고연)

復值接輿醉(부치접여취)

狂歌五柳前(광가오류전)

날씨 쌀쌀함에 산은 더욱 푸르고

가을날의 시냇물 날마다 졸졸 흘러,

지팡이 짚고 사립문 밖으로 나가

바람쐬며 저녁나절 매미소리 들노라니,

나루터에 석양이 아직 남았고

옛 마을에 외로운 연기 피어오른다.

그래서 접여 같은 그대 만나 술에 취해

망천강 앞에서 미친 노래 부른다.

■ 작자소개

- 왕유(王維; 699~759). 당나라 때 저명한 시인이며, 화가로 시, 음악, 그림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남종화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남종화는 문인화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화풍으로 개인적인 감정 표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여러 가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표현양식을 채택하였으나, 산수화를 발달시킨 최초의 사람 중의 하나로 특히 유명하다. 그는 생존 시에 설경산수화로 유명했으며, 가장 유명한 작품은 <망천도>라는 화권이다. 이 그림은 전해지지 않으나, 후에 제작된 많은 모사품으로 대강의 구도는 보존되었다. 또한 그는 자연의 정치와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노래한 시인으로 이백(701~762), 두보(712~770) 등의 유명한 당대 시인들과 함께 서정시 형식을 완성한 시인으로 손꼽힌다.

■ 감 상

- 734년 왕유는 장구령의 추천으로 우습유(右拾遺)에 발탁이 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장구령이 실권하자, 왕유 역시 젊은 시절부터 염원했던 관직생활에 점차 흥미를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남산 자락에 송지문(宋之問)이 소유했던 망천(輞川)의 별장을 매입하여, 반쯤은 벼슬을 하고 반쯤은 은거를 하는 반관반은(半官半隱)의 길로 들어섰다. 망천장은 왕유의 일생에서 아주 상징적인 장소로 남게 된다. 그리고 배적(裴迪)과 많은 시를 지어 주고받은 장소이기도 하다. '접여(接輿)'는 『논어(論語)』에 나오는 인물이다.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거짓으로 미친 척하면서, 초야에 묻혀 살아갔던 은자의 이름이다. '오류(五柳)'는 진(晉)나라의 은일시인이었던 도잠(陶潛)의 아호(雅號)다. 그는 자연을 벗 삼고 살아가는 자신의 집 앞에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가 있었기에, 스스로 '오류선생'이란 호를 지녔다. 이것이 호의 기원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오류'가 그 옛날의 도잠처럼 자연에 묻혀 사는 왕유 자신의 망천장을 가리킨다.

■ 역사속의 오늘

○ 상식과 비 상식 - 1984년 4월 2일

1984년 4월 2일 오후 1시 20분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7사단 GOP 폐유 창고 뒤에서 중대 전령으로 복무하던 허원근 일병(당시 23세)이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M16 소총 총상을 입고 숨진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는 전남 진도에서 1962년 태어나 고등학생 때 광주항쟁에 참여했었고 부산수산대 3학년 때 강제휴학 당해 입대했다. 그가 근무하던 부대는 그날 밤 8시경 허원근씨의 아버지에게 "귀대 중 사망"이라는 전보를 띄웠다. 부대로 달려간 아버지에게 헌병대장은 처음에 "자살인지 타살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군은 최종적으로 "허원근 일병이 처음에 오른쪽 가슴, 두 번째는 왼쪽 가슴을 쏘아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눈썹에 밀착 사격해 두개골 파열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발표했다.

외계인이나 금강불괴가 아닌 이상 M16 소총 세발을 흉부에 두발을 맞은 상태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안면에 직접 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과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수십 수백명에 이르는 80년대 의문사에서도 가장 긴 시간 세인의 입에 머무르고 있는 "허원근 일병 사건"은 이렇게 1984년 4월 시작된 후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가족들은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 국회에 청원서를 내고 행정기관에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상대는 대한민국 군대였다.

가족들의 의문에 대답한 국가 기관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원회)가 처음이었다. 사건 발생 18년 만이었다. 2002년 의문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M16 소총을 반자동 위치에 놓고 오른쪽 가슴과 왼쪽 가슴 그리고 머리에 한 발씩 맞았는데 이를 두고 자살로 판단한 군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상식적인 결론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민국 군대는 국방부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건을 재조사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전두환 정권의 헌병대와 똑같은 결론을 낸다. 역시 허원근은 외계인이라는 것이었다. "중대장의 가혹 행위에 견디다 못해 M16 세 발을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과 머리에 쏘고 죽었다."

평범한 대한민국 육군 장병을 외계인으로 대하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총기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와 군대는 요지부동이었다.

“자살했다면 총에 피가 묻어야 하는데 총에 피가 보이지 않는다. 사체 주변에 피나 골편(骨片), 뇌조직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즉 사체가 이동되었다는 것을 사진이 보여준다. (미국 LA경찰 과학수사부 현장감식반 Chase Choe)”

“사체 주위에 피가 너무 없다. 머리에 총상을 입을 경우 사체 주위에 피나 골편, 뇌조직이 산재해야 하는데 현장 사진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국 NY경찰 현장감식반 Gary R. Gomula)”

“자살했다면 총에 피가 묻어야 하는데 총에 피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자살했다면 총상의 각도를 볼 때 땅에 총을 대고 쏘야 하는데 총 개머리판에 흠이 보이지 않는다. 왜 총에 피가 묻어 있지 않은지 의문이다. 여러 번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아 의문이다. (미국 LA경찰 과학수사부 총기감식반 Rafael Garcia)”

2004년 2기 의문사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진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장으로서 허원근은 외계인이었다는 투의 발표를 되풀이했던 정수성 장군은 의문사위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1기 의문사위원회 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 조사 결과를 나한테 먼저 알리지 않고 언론에 발표하면 당신들 다 죽어!”

의문사위원회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정 모 장군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경상도 톤’ 때문에 오해를 빚었을 수 있다는 군인답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한다. 이후로도 그는 아무 탈 없이 승진하여 1군 사령관을 거쳐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2기 의문사위원회의 조사 과정도 험하긴 마찬가지였다. 군 당국의 무성의는 말할 계제도 못되고 심지어 가스총을 쏘면서 조사단원들을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당연하게도 조사 결과는 국방부특별조사단의 그것과 달랐다. 2기 의문사위원회 역시 자살이 아님을 주장하고 용의자까지 제시한다. 한 사건을 두고 두 국가 기관이 외나무다리 위의 양처럼 뿔을 세운 이상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었다.

사건 발생 26년(기실 이도 수평적 정권 교체가 없었다면 단언컨데 요원한 일이었을 것이다)이 흐른 2010년 2월, 법원은 1심에서 허 일병의 죽음이 타살이었음을 인정하고 국가로 하여금 부모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한다.

판결문은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만들었다.

“사고 당일 허 일병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나 당시 대대장과 보안사 간부 등은 자살로 위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구체적 지시를 내렸고, 부대원은 물청소로 사망 흔적을 지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헌병대는 요구한 대로 진술하라고 중대원에게 가혹 행위를 하는 등 조작 및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3년 8월 고등법원은

“M16 소총으로 흉부에 2발, 머리에 1발을 쏘 자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보인다.”며 이 사건을 자살로 결론지었다. 인간 허원근이 다시 외계인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최종적으로 2015년 9월 10일 대법원은

“허원근 일병의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당시 조사와 부검이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사망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원인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에서 타살에 따른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건 정당하다.” 고 결론지었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 아래서 허원근은 외계인으로 규정당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33년이 흐른 지금까지 대한민국 군대는 국군장병의 사기와 명예를 이야기하며 일관되게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계인을 아들로 둔 적이 없는 고인의 아버지는 44살에 만난 아들의 죽음을 77살이 되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참척(慘慼)의 한(恨)만으로도 뼈와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거늘 그 원인조차 밝힐 수 없으니 그 아버지의 포한을 우리가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그의 아버지는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서 외치고 있다.

“진실을 밝혀 달라.”

명예와 사기란 껍데기로 술한 죽음을 만들어 낸 대한민국의 역사, 그 역사의 흔적에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문장은 한국의 18대 대통령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이 땅의 역사를 일궈온 수많은 民人들이 피토하듯 외쳐야 할 말이다. 묵은 폐단을 도려내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달려가자.

허원근씨를 비롯해 밝혀지지 못한 죽음과 마주해야만했던 수많은 이들의 명복을 빈다.

간편하게 먹는 건강한 한끼
구수함은 기본, 더 건강한
3가지맛 누룽지

쌀 / 현미 / 보리



김제평야의 질 좋은 쌀과 현미,보리로 만든 - 금싸락누룽지

드 넓은 김제평야에서 자란 간척지 햅쌀과 현미, 보리로 정성껏 만들기에 더욱 고소한 맛과 함께 건강을 가득 담은 바삭하고 고소한 영양식입니다.

■ 금사락 누룽지 판매 가격

종류	규격	가격		비고
		정상가	할인가	
금사락 누룽지	150g*10봉	23,000	21,000	
	150g*20봉	44,000	42,000	
	200g*10봉	27,000	24,000	
	200g*20봉	52,000	48,000	
	3kg	33,000	30,000	
	750g*2봉	19,800	18,000	
	750g*4봉	39,600	36,000	
	750g*6봉	59,400	54,000	
금사락 현미 누룽지	150g*10봉	28,000	25,000	

※ 연구원 심범식 회원이 직접 생산하는 맛있는 누룽지입니다. 설 이후에도 연구원 회원 들께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택배비 : 3,000원(40,000원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주문은 심범식 회원(010-5493-505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회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가족애(!!!)를 보인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